

思想의 俗惡化에 抗하여 唯物 辨證法 [제2회 上中下]

黃郁

「인제부터는 唯心論의 時代 宗教의 時代이다. 지금까지의 唯物論은 辨證法의 한낱 「테-제」이 었으며, 인제부터는 그 「안티테-제」 唯心論의 時代이요, 「唯心を 重要히 하는 史觀」의 時代가 금시 올 것이라」고 히틀러-式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豫言한다. 그들은 素朴한 確信과 熱烈한 □□을 가지고 唯心論 時代來를 웨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이 確信을 얻으며 무엇 때문에 이 熱烈한 □□비 가지게 되는가?

첫 재 그들의 이러한 信念은 그들이 오래 前부터 젓어 잇는

唯心論 또는 唯心史觀으로하여 생기는 것이니, 그들은 어떤 한 두사람 또는 그들의 團體의 힘으로 어떤 思想이(가령 唯心論 또는 唯物論)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歷史의 수레바퀴」를 後轉시키려는 사람들의 □□과 活動에 依해서라도 唯物論時代의 終焉을 告하게 하고, 唯心論時代 宗教時代를 오게 할 수 잇으리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思想-唯心論唯物論 또는 現在 그들이 가지고 잇는 그런 생각까지도 모두 一定한 社會關係=經濟關係, 階級關係=에 對應하는것임을 알지 못한다. 또는 짐짓 하지 못하는체 하는 것이다. 그들은 社會의 모든 關係 卽 모든 思想의 根底에 놓여 잇는 經濟 그 他의 關係는 생각해 보려구도 않고, 一部 知識層사이에 나타나는 思想現象의 表面만을 붓잡아 가지고 사상의 劃時期를 云云한다. 이것은 그들의 信念(?)이 생기는 由來이어나와 그러면 그들이 唯心論時代=宗教時代가오기를 그다지 □□하는 原因은 무엇인가? 그것은-區區한 說明을 除하고 結論만을 말하자면-結局 資本主義勢力의 逆□이라는 經濟現象에 對應하여 생기는 뿌루조야지-의 思想的 表現이다. 資本主義를 다시 지난날의

盛時로 돌려 보내라는 欲望은 모든 것을 過去로 돌려 보내라는 欲望으로

化하여 모든方面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欲望은 非但 資本家階級과 眞 그들의 學盛時로 물려 보내라는 欲望은 모든 것을 過去로 돌려보내라는 欲望으로 化하여 모든 方面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欲望은 非但 資本家階級과 眞 그들의 學者와 御用人들에게만 強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中間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強烈히 일어난다.(中略) 唯心論과 宗教의 時代에 對한 一部 思想家들의 그 強烈한 欲望은-論理의 힘을 無視하고 라고 自己들의 主張을 세우려까지 하는 그 強烈한 欲望은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 自身の 現在의 思想도 一定한 經濟現象에 그 原因이 있음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一部 思想家들은 가장 自己들의 努力으로 思想의 새로운 時代를 가져온 듯이 떠돌고 活動한다.

그리고 그 麾下에는 相當히 많은 사람들이 群集하여 그 中에는 勿論 思想的으로 轉落한 唯物論자의 一群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의 現境에 刺戟되어 일어난 그들의 思想的 努力은 그들의 現境에다 얼마마한 變化를 주어 新興階級の 運動에 多少의 打擊을 주는데 까지 이르며 新興階級の 思想을 逆擊하려하는데 까지 이른다. 이리하여 그들은 近來여러가지고 唯物論과 辨證法을 破壞하려하며, 그 吊間을 올리기 爲하여 論理의 領域을 떠나서 宗教的 妄信을 가지고 突進하게된다. 이러한 境遇에 思想은 俗化되며 惡化되지않을수 없는 것이니, 왜 그러냐하면 그들과 같은 態度를 가질 때 사람은 모두 思想을 깊은 研究도없이 自己에 便宜한대로 應用하기를 끄리지 않음으로써 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自己들은 十年前 또는 百年前의 思想을 그대로 眞理하고 믿고 잇으면서, 相對階級の 思想, 가령 唯物論은 그것이 이미 十餘年間 世界思潮의 主流가 되어 왔다는 오직 그 理由로 辨證法の

適用을 받아, 그 「안타·테-제」로 옮겨가야 된다고 主張하는것 같은 것은 이 얼마나 辨證法을 마음대로 利用하려드는 俗化惡化된 思想인가. (中略)그러나 우리는 그런 俗惡한 理論을 一一히 들어 論難하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그것은 우리가 恒常反復한다는 前部の 辨證法과 唯物論에 對한 簡單한 說明만으로도 論破 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남은問題가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物久則變」라는 말도 있고, 또 辨證法은 사물의 流轉變化를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思想과 思潮도 또한 항상 變化하고 오래되면 變하여질 것이니 따라서 唯物論이나 唯物史觀도 오래되면 또한 낡아지고 廢物이 되어 버려질 것 아니냐? 비록 아주 抹殺될 것은 아니나, 인제는 唯物論도 唯物史觀도 그 「王座」를 잃어 버릴 것이다. 보라! 지금 世界에는 心的要求와

宗教的 要求가 새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

에서도 누가보아도 알어 낼 수 잇는 것은 論理的 飛躍이 잇는 것이니, 假使
천만번 讓步하야 唯物論時代가 끝났다 하기로 그 뒤에는 반듯이 唯心論 또
는 거기 가까운 것 宗教 等の 時代가 오리라는 □論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
러면 唯物 辨證法은 果然 未來 永久에 變함없는 眞理인가 아닌가?